

원저 (√ ) 증례보고 ( )

제목

단일기관에서 진단된 소아 난소 낭종의 임상적 경험

소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저자

장은영, 홍영주, 한석주, 오정탁

발표자: 장은영

책임저자: 오정탁

초록

**(배경)** 소아의 난소 낭종은 최근 산전진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단순 낭종일 경우 보존적 방법으로, 복합 낭종일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접근법의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이에 본원에서의 치료경험을 조사하여, 소아의 난소낭종의 치료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 년 3 월부터 2013 년 4 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난소낭종으로 진단받고 추적관찰중인 소아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적 특징 및 치료 방법 등을 분석하였고,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기간 동안 전체 환자수는 96 명이었으며, 이 중 신생아는 48 명 (64%), 1 세 미만은 75 명 (78.1%), 1 세 이상은 21 명(21.9%)이었다. 신생아 환자에서 산전 진단율은 35 명 (72.9%)이었고, 평균 재태연령은 38.7 주였다. 1 세 이상의 환자 중 18 명 (85.7%)는 증상이 있는 낭종으로 응급실 혹은 외래를 통해 진단된 경우였다. 낭종의 위치는 우측 45 명 (46.9%), 좌측 30 명(31.3%), 양측 20 명(20.8%)이었다. 전체 환자 중 단순 낭종은 58 명(60.4%)으로 이중 49 명(84.5%)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평균 낭종의 크기는 16.5mm 였다. 단순 낭종 환자 9 명 (15.5%)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시 평균 낭종의 크기는 55mm 였다. 복합 낭종은 38 명 (39.6%)으로 이 중 34 명(59.5%)에서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시 평균 낭종의 크기는 47mm 였다. 수술은 개복수술이 29 건(56.9%) – 낭종절개술 3 (5.9%), 낭종절제술 8 (15.7%), 난소절제술 6 (11.8%), 난관난소절제술 12 (23.5%) –이였으며, 복강경수술이 22 건(43.1%) – 낭종절개술 2 (3.9%), 낭종절제술 9 (17.6%), 난소절제술 6 (11.8%), 난관난소절제술 5 (9.8%) – 였다. 수술 시행 후 조직학적 진단은 follicular cyst 11 건 (23.9%), corpus luteal cyst 3 건 (6.5%), teratoma 6 건 (13.0%), torsion 32 건 (69.6%)이었다.

**(결론)** 소아의 난소 낭종의 치료는 단순 낭종에서는 경우는 크기가 커서 torsion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복합 낭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치료의 변화에 대한 좀 더 다각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